

“그린라운드”에 本源的 對備를



李 賢 宰
(國立公園協會 會長)

生活環境에 대한 洗練된 感覺을 갖지 못한 經濟活動이 결국은 資源의 誤用과 浪費를 초래케 하고 生命의 公共財인 淸淨한 大氣, 물마저도 毒劇物로 化해버리게 한채 戰戰兢兢하는 우리네 물골이 너무도 처량하다.

이와같이 環境問題가 切迫한 狀況이 된 原因은 해야될 수 없이 많지만 가장 端的인 것은 工業化의 進展에 의한 資源의 大量소비와 生産과정에서 派生되는 배출물 폐기물의 증가가 自然界의 리사이클能力的 限界를 벗어난데 緣由하는 것이다.

企業의 生産패턴과 消費大衆의 生活방식에 一大革新이 요청되는 所以이며 또한 이는 汎人類의 合意에 바탕하는 地球的 規模의 대책이 뒤따르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실로 世紀的인 難題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기에 國際環境協約이 UNEP(유엔환경계획)를 중심으로 꾸준히 추진되고 있거니와 우리 協會도 그 멤버인 IUCN(국제자연보전연맹)을 비롯한 WWF(세계야생보전기금) Green Peace 등 국제민간단체들의 열성적 노력이 크게 뒷받침되고 있는 것은 特記할 만한 것이다.

여하튼 昨今の 國內外的 關心은 “그린라운드”라 일컬어지고 있는 환경문제를 最優先의 考慮사항으로 꼽는 새로운 通商秩序의 태동에 쏠리고 있다.

이는 貿易自由化를 추진하는 GATT 체제안에서 貿易과 地球환경문제를 調和시킬 수 있는 國際規範을 만들려는 多者間協商으로 구체화될 展

望이다.

先進國, 開發途上國의 차이 등 國家別 환경기준이 서로 다른데 따른 商品경쟁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비용 차액만큼의 相計關稅를 징수하는 문제가 그린라운드의 뜨거운 論爭거리로 등장하리라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여기서 우리가 꼭 다짐해야 할 것은 本質的인 것을 제쳐놓고 技業末節의 積當주의적 對處로 얼버무리려는 作態는 단호히 배격하자는 것이다.

바야흐로 ISO(國際標準化機構)가 추진중인 이른바 “ISO 18,000 시리즈”라 命名된 국제환경표준화제도는 商品뿐만 아니라 病院, 백화점 등 서브스業種까지 적용대상으로 삼는다하니 開放시대의 無限경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우선 “環境”의 시험대를 무난히 통과해야 한다.

더구나 商品의 연구개발에서부터 原料의 채취, 生産, 유통, 판매, 폐기처리에 이르는 企業의 모든 활동과 완제품의 壽命週期 등 全過程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를 事前評價 심사하는 제도가 마련되리라 하니 그 關門이 얼마나 두꺼운가를 가히 짐작할 만하다.

이제 환경투자를 追加的 코스트로 인식하는 從來의 發想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生存을 위한 필수적 비용이라는 企業마인드를 定着시켜야 할 때다.

그리하여 政府와 企業은 다함께 닥아오는 危機를 도리어 새로운 市場개척의 好機로 역전시키는 지혜와 不退轉의 의지로서 그린라운드에 本源的인 對備를 서둘러야 한다.